

	<b>인도네시아(자카르타) 사무소</b> <b>해외동향보고서</b>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하원정 소장
		일시	2024.6.3

## CEPA Insight

- 2025년 부가가치세 12% 인상 재검토 필요... 경제성장에 실수 될 것
- 2024년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 Pertek요건 완화 발표
- 부산 자카르타 직항 주 7회, 부산·청주발 발리행 직항 주 4회 신설
- 아세안 관문 인도네시아서 한국성적서로 ICT 기기 인증 신청
- 충남도의회 코참 간담회

### ■ 2025년 부가가치세 12% 인상 재검토 필요... 경제성장에 실수 될 것

‘르바란 총선 경기 호재에도 5.11%에 불과 환율은 16,000 루피아대로 약세’

(출처 : 한인포스트, 2024.05.19)

-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에 부가가치세(Pajak Pertambahan Nilai, PPN)를 11%에서 12%로 인상하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. 경제금융개발연구소(INDEF)에 따르면, 2024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.11%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함.
- INDEF부소장은 2024년의 경제 성장률과 가계 소비 증가율을 고려할 때, 구매력이 억제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음.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부가가치세 인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.
- 부가가치세 인상은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실수가 될 수 있다고 경제금융개발연구소는 강조함.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고 결정해야 함.

### ■ 2024년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 Pertek요건 완화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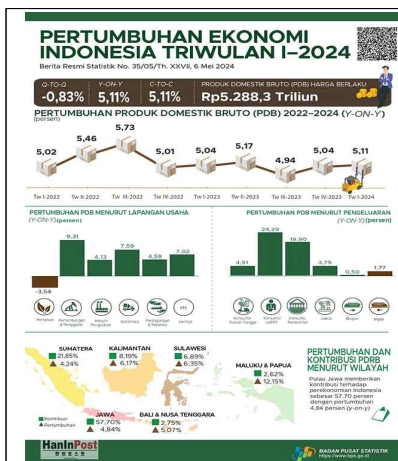
- 2024년 5월 21일, 무역부 공청회를 통해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 발표
- 제3차 개정으로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, 화장품 및 가정용품, 가방, 벨브, 윤활제 원료 등 5개 품목은 사전수입승인(PI) 면제됨

- 또한 Pertek 요건을 완화하여 대부분의 품목들의 경우 더이상 pertek을 취득하지 않아도 됨  
↳ 3차 개정안에서는 전자 제품, 전통 의약품, 건강보조식품, 화장품, 가정용품, 신발, 의류, 가방 및 밸브에 대해 Pertek 취득 의무를 제거함. 다만, 현지 생산 공장 없이 타이어를 수출하는 경우 Pertek은 필요(출처 : 코트라, 2024.05.27)

## ■ 부산 자카르타 직항 주 7회, 부산·청주발 발리행 직항 주 4회 신설

- 부산과 자카르타 간의 왕복 직항 노선이 주 7회 운행되며, 부산과 청주에서 발리로 향하는 직항 노선도 주 4회로 추가될 예정임 이는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30개의 노선 운수권이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된 결과임
- 부산에서 발리로 가는 노선은 에어부산이 매주 4회 운행하며, 청주에서 발리로 가는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주 3회 운행함. 이는 인천공항에서만 운행되던 발리행 노선이 부족하고 운임이 높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임
- 부산에서 자카르타로 향하는 새로운 노선도 마련됨. 진에어가 주 4회, 에어부산이 주 3회 운수권을 획득함. 부산시는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해외여행 편의성을 높이고 운임을 안정화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음
- 부산을 비롯한 부산·울산·경상 지역은 신발제조 및, 소재부품산업이 발달하고 있어 상용출장 수요가 높음. 지난 몇 년간 부산시는 지정 운수권 증대 및 직항노선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으며,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노선 개설을 통해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됨

(출처: 한인포스트, 2024.05.27.)



(출처 : 한인포스트)

<통계청 발표 2024년 1분기 경제 성장률 5.11%>



(출처 : 자카르타포스트)

<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 발표>

한-인도네시아 운항현황(23년 동계기준)					
국적	항공사	노선 및 운항횟수			
대한민국 (여객 주23회, 화물 주1회)	대한항공	(왕) 인천/자카르타/인천 주7회			
	하남항공	(왕) 인천/덴파사르/인천 주9회			
인도네시아 (여객 주8회)	가루다	(왕) 자카르타/인천/자카르타 주4회			
	인도네시아항공	(왕) 덴파사르/인천/덴파사르 주4회			

### 인천-발리 노선 양국 항공사 탑승률(23)

국적사/외항사	노선명	년도	항공사명	여객(회)	탑승률	운항(번)	주당 운항(번)
국적사	인천-발리(발리)	2023	대한항공	242,654	92.4%	937	18
외항사	인천-발리(발리)	2023	가루다	46,151	76.1%	228	4

(출처 : 한인포스트)

<2023년 한국-인도네시아 운항 현황 국토교통부 자료>

## ■ 아세안 관문 인도네시아서 한국성적서로 ICT 기기 인증 신청

**‘인니와 1단계 상호인정협정 체결..과기부 “출시 기간 단축·비용 절감”**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가 정보통신기술(ICT) 분야에서 상호인정협정(MRA)을 체결함. 이는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로의 ICT제품수출을 용이하게 할 것임. 협정은 아세안 디지털수출개척단이 인도네시아를 첫번째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함.
-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국내 ICT 기업의 수출에 대한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. 한국은 현재 미국, 영국 등 31개국과 MRA 1단계를, 캐나다와는 2단계를 체결한 상태이며, 이번 체결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적합성평가 시험을 받은 제품은 정부 인증만 거치면 바로 수출가능하며, 제품출시기간을 단축하고 시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.
-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, 경제성장률도 5%대를 기록함. 지난해에만 ICT 산업을 13% 이상 성장시킨 신흥 ICT 강국으로 국내 ICT 제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. 이번 협정은 양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, 기술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(출처: 한인포스트, 2024.05.27)

## ■ 충남도의회 코참 간담회

- 충남도의회 대표단이 5월 21일 코참을 방문했다. 이강현 회장은 인도네시아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함 인도네시아는 매년 5% 안팎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LG, 삼성 등 대기업의 진출과 함께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며 현재 2,000여 개의 한인 기업이 있고, 이들은 100만 명의 현지 인력을 고용하여 인도네시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
- 이어 충청남도과 인도네시아 청소년 교류활동지원확대 및 노동력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. 충남도의회 대표단과 한인회 대표단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력의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됨(출처: 코참나우, 2024.05.31.)



(출처 : 한인포스트)

<한-인도네시아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(MRA) 1단계 체결>



(출처 : 코참나우)

<충남도의회 코참 간담회>